순천만정원 지역 배려 없는 운영 원성 높다

식음료 시설 공모 대기업 기준 강화로 영세업체 참여 어려워

AI로 습지 폐쇄 불구 통합입장권 가격 그대로 받아 항의도

순천시가 순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미숙하게 운영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조성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약속과는 달리 정원 내 최대 수익사업인 식음료 판매시설 운영자 공모 과정에서 입찰자격을 대기업 기준으로 강화하는 등 사실상 지역 영세업체들의 참가를 어렵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의 식음료 판매시설을 제1호 국가정원의 격에 맞게 전면 교체하기로 하고 10여 개 시설 총괄 운영자 공모에 들어갔다.

시는 공모 배경으로 '지난해 540만명의 관람객이 찾았고 식음(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통해 11개 업체의 신청을 받은 뒤 지난 13일 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기업을 포함한 모두 10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찰자격을 놀이공원·테마파크·워터파크 등 오락시설, 극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리조트·쇼핑몰·병원·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유사시설 등에서 영업장 1000㎡ 이상을 1년 넘게 운영 중인 업체로 한정해 사실상 대기업이 아니면 참여 자체를 차단해 영세 업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특별한 사업 능력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는 커피숍이나 매점, 자판기 운영까지도 통합으로 발주해 지역 영세 업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시는 또 이번 입찰 참가업체와 지난해 국가정원 내 식음료 판매 매출 등에 대한 질문에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대기업 배려 공모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순천시는 이 같은 논란에도 오는 3일 제안서를 받아 8일께 경영능력 80%, 가격점수 20%를 기준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총괄운영을 통해 국가정원의 격에 맞는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민 고용 창출과 순천산 식재료 사용, 특색있는 메뉴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 등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또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순천만 습지를 폐쇄하고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묶어 파는 통합입장권 가격은 내리지 않아 관광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순천시는 AI가 급속하게 확산하던 지난해 말부터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습지를 폐쇄하고 관광객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통합권(성인 1명 기준 8000원)을 그대로 판매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통합입장권 부분에 대해서는 티켓을 소지한 관람객에 한해 올 연말까지 순천만습지를 한 차례 더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한 박상현(40·광주광역시 지산동)씨는 "두 곳 중 한곳을 폐쇄했으면, 절반 가격에 표를 판매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먼길을 온 탓에 그대로 돌아갈 수도 없어 8000원씩을 내고 입장 했지만, 금액을 떠나 아직까지도 화가 난다. 앞으로는 순천쪽은 가기도 싫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회명솔레니스 한창호(왼쪽) 대표와 조충훈 순천시장은 최근 순천시청에서 해룡산단 투자 협약을 맺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회명솔레니스(주) 해룡산단 50억 투자협약

순천시는 "최근 해룡일반산업단지 수처리약품 제조업체인 회명솔레니스(주)와 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회명솔레니스는 순천해룡일반산단에 부지 4640㎡를 매입하고 공장을 신설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생산품은 인근 여수국가산단과 전남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회명솔레니스는 경북 구미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수처리약품을 제조 판매해 연간 100억원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업유치로 33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정원 '비밀의 화원'으로 초대합니다

내달말까지 3가지 테마 전시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1층 로비에서 오는 3월 말까지 '새벽을 깨우다, 희망을 꿈꾸다'를 주제로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전시·정원연출을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진〉

3개 테마는 '비밀의 화원', '프리저브드 플라워 전시', '붉은 닭, 희망정원' 등이다.

'비밀의 화원'은 황금 능수버드나무로 부드럽게 솟구쳐 오르는 모양을 연출했으며, 심비디움으로 신비한 영적 기운이 넘치는 우아함을, 골든볼로 황금열매를 표현했다. 울창한 황금나무 숲(세상)에 황금(꿈)을 찾아 떠나 그 속에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리저브드 플라워 전시'는 장미, 강아지풀, 작약, 단풍잎 등 우리 주변의 친숙한 자연 소재로 만든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활용한 액자, 공간장식 소품 등 생활 속 작품 75종 114점을 제작·전시하고 있다.

또 '붉은 닭, 희망정원'은 붉은 닭의 해를 맞아 붉은 닭이 알을 잉태하는 조형물과 봄을 느낄 수 있는 튤립, 양란 등 다채로운 화훼를 함께 연출해 순천만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희망찬 새해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있다.

전시참여 작가는 한동기, 송부용, 엄숙희 등 6명이며,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원관리과(061-749-2787~9)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시 청년창업 1호점 '청춘창고' 8일 개점

순천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 1호점 '청춘창고'〈조감도〉를 오는 8일 개점한다.

지난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열차 여행객이 찾는 숙소(게스트하우스) 밀집 지역인 순천역 부근 농협 양곡 창고를 고쳐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자 청년 문화 교류의 장인 '청춘창고'를 만들었다.

순천시는 이곳을 청년 점포 22개, 공연 공간인 무대(이벤트 스테이지), 오픈 스튜디오 등을 갖춘 청년층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오는 8일 정식 개점할 예정이다.

1층에는 스테이크, 수제버거와 얇게 구운 케이크의 일종인 크레페, 철판 아이스크림, 오징어 튀김, 파스타 등 먹을거리 점포 15개가 입주한다. 2층에는 인테리어 소품·장난감·도자기·3D 프린팅 등 공예 점포 7개가 들어선다.

이곳 이벤트 스테이지에서는 예약을 통해 누구나 공연을 하거나 다양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또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공예체험은 물론 취업과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비정기적인 창업 상담 등도 진행한다.

순천시는 청춘창고를 매일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휴일 없이 365일 운영할 계획이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활용도가 낮아진 양곡 창고를 새로운 공간으로 꾸며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공간이자 청년문화를 교류하는 특색있는 곳으로 만들었다"며 "청년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승주읍 석동마을에 안전산타 찾아왔네

현대제철 순천노조, 취약계층에 화재 예방용품 설치

현대제철 순천노조 안전산타팀은 "최근 순천시 승주읍 석동마을을 방문해 동절기 방한용품과 화재 예방용품 등을 지급·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활동은 화재, 난방시설, 위생 등 주거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세상아이와 공동으로 승주읍 30가구를 선정해 1차 신전마을에 이어 2차로 석동마을 7가구에 대해 자원봉사를 펼쳤다.

(사)세상아이는 최근 대상 가구를 사전방문해 가구별로 필요한 방한물품과 가스밸브 차단기, 보일러 상태, 화재경보기 등을 점검했으며, 현대제철 순천노조는 10여명이 3개조로 팀을 나눠 신속하게 맞춤형 설치에 나섰다.

한편 이번 봉사는 오는 4월까지 매월 승주읍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순천=박선천기자 psc@